

Happy Mother's Day!!! 한국에서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고,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어머니, 생존해 계시거나, 돌아가셨거나 그 사랑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 이 자리에 어머니이신 성도님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의 가정과 각자 삶의 모습이 어떠한 지 점검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 삶이 제한적이기도 하구요, 세상은 각박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은 우리, 어머니의 사랑(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여유가 있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헤아려 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받을 사랑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나눠 줄 사랑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집 안팎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예쁜 장미꽃을 재배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늘 휘파람을 불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도 또 집 밖에서도.. 계속해서 휘파람을 불면서 일을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장미꽃을 키우는 남자가 쉴 새 없이 휘파람을 부는 것입니다. 이웃집 부인은 ‘혹시 내게 마음이 있어서 휘파람을 부는게 아닌가?’ 라는 착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물론 이웃집 부인은, 자기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휘파람을 분다는 것을 알게 되어 오해는 풀었지만, 너무나 궁금해서 한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늘 휘파람을 부세요?” 그러자 남자는, 자기 집으로 그 이웃을 데리고 들어갔지요. 집 안에는 이 남자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말했지요. “제가 왜 항상 휘파람을 부는지 궁금 하시다고요? 그 이유는, 제가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 일할 때 아내를

저의 휘파람 소리를 들어야, 함께 있는 것으로 알고 안심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 휘파람 소리는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신호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집안의 앞을 볼 수 없는 아내는, 이 신호로 인해 안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신호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기 위한 신호를, 지금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나의 일상 삶 안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한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신호를 우리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듣고, 보는 사람은 평화를 느끼고 안심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대중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양의 문과 선한 목자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후에 부탁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일이었음을 다시금 마음판에 새겨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에 이르렀고 그 때가 겨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닭을 수, 전과 전을 써서 봉헌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이교도에 의해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봉헌한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Feast of Dedication, Feast of Light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필요는 없었구요, 8일 동안 각자의 집에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개의 촛불을 더해서 마지막 날에는 8개의 촛불을 모두 켜는 빛의 축제가 기도 해요. 수전절을 하누카라고도 하지요! 수전절, 하누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수리아(시리아)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의 제단을 세우게 해서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있었

습니다. 이에 주전 164년에 마카비우스 형제가 주축이 되어 게릴라전을 통해 그리스 군대를 무찌르고 성전을 탈환하고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11-12월로서 "겨울"이었습니다. 물론 겨울이라고 해서 한국이나 여기처럼 눈오고하는 건 아니지요. 이스라엘의 겨울은 11월에서 3월까지 온난하고 다습한 기후라고 하지요. 서쪽으로는 지중해하는 큰 바다, 동쪽으로는 거대한 아라비아 사막에 끼어있어서 작은 나라치고 기후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하네요. 어쨌든지, 수전절의 의미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근에 구원을 얻은 일이었죠. 말라기에서 세레 요한까지 약 400년의 침묵기라고 부르는데, 침묵기라고 부르는 까닭은 권위 있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수전절의 영적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는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와 내 욕망의 소리에 더 귀를 쫓긋 세우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1학년 2학기 때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지 않을래?’

그 전까진 제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았었습니다. 학업, 미술, 과학, 음악 같은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시 대회, 전국 대회에 많이 참가해서 상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해서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교회는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는지라, 부모님의 요구에 할 수 없이 출석만 했습니다. 학생부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3부 행사 안하고 도망갈 수 있을까만 궁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말씀도 가끔씩 교회에서 읽거나, 부모님께 용돈 타려고 읽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막연하게나마,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목사가 되지 않을래?’ 말씀하실 때마다 ‘난 죽어도 목사는 안해!’ 했던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그 당시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 최영의 하나님도 되어 주시는 구나를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때 그 곳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였구나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사람은 또 보이지 않았습디다. 속으로 사람들을 무시도 많이 하고 팔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행동했지만요. 시간이 좀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고, 그들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교만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의 육신의 귀에 들리게끔 말씀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러한 특별한 순간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들려지는 무수히 많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혼동스럽고, 고민하고 갈등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주시는 말씀은 분별하게 된 계시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나주심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제 안에 떠오르는 것이 모두 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은 마귀의 생각이었고, 어떤 것은 내 욕망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 11-1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한번 예수님 영접했으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헤피엔딩으로 꼭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바램처럼 한번 생수를 마셨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았으면

중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나오는 참생명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시말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삶을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읽고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리 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카톨릭교회는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해서 교인들은 말씀을 들을 수 없었어요. 예식만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요행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요행을 바라면, 그것을 노리는 이단 삼단에 놀아나게 됩니다. 성경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에 가능한 한 열심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분주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많은 소음들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의 양이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